3대 종교 "부산 저출산 공동대응 협력"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협약

부산시 출산 관련현황에 따르면 부산시 합계 출산율이 서울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발표됐다. 부산시는 비혼 · 저출산 원인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 미래관 및 사회활동에 소외되는 여성 현실이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음을 파악, 인식 개선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8월 16일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3대 종교단체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부산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돼 겪는 심각성을 공감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며 출산 장려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협약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장 서창수 목사, 천주교 부산교구 손삼석 교구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 실천 내용은 △우리사회의 다음 세대 유지를 위한 출생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시민과 각 종교단체에 알리기 △검소하고 의미 있는 결혼, 신혼 출발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 △남녀 공동 육아 장려 등 출생과 양육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 등이 포함됐다.

경선 스님은 "스님은 독신으로 계를 지키며 살아야 하지만 일반 불자를 비롯해 복지단체, 노인단체, 신도들을 만날 때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가야문화 숨 쉬는 산사음악회

가야문화진흥원, 김해 알리는 북 콘서트 열어

가야문화가 녹아있는 김해를 알리는 산사 북 콘서트가 진행됐다.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송산)은 8월 17일 '가야문화와 함께하는 산사의 북 콘서트' 를 은하사에서 개최했다. 콘서트는 불교음악 연구원 전문위원인 효강 스님의 색소폰 연주와 이수정 성악가의 노래 그리고 김성기 동부산대 실용음악과 교수의 연주로 문을 열었다. 신어산 아래 위치한 은하사를 방문한 나들이객과 휴가를 맞아 찾은 지역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음악을 들으며 쉼을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산사 북 콘서트는 칼럼니스트 조용헌 박사의 강연으로 이어졌으며, 조 박사는 신어산이 가지고 있는 지리학적 의미와 중요성을 쉽게 설명했다.

조 박사는 "신어산은 왕과 거상 등 큰 인물이 나오는 풍수적 위치를 갖고 있다"며 "불교는 높은 안목으로 자연을 살펴보며 역사와 전통 문화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산청 왕복사, 전통 출가의식 재현

출가 삭발의식은 인천의 스승이 되는 첫 걸음이며 출가수행자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례다. 일반인에게 성스러움으로 느껴지는 출가 삭발의식을 전통방식으로 재현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행사가 열렸다.

산청 왕복사(주지 자우)는 8월 17일 경내 대웅전에서 행자 출가 삭발의식을 봉행했다.〈사진〉 삭발의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독송 △부처님과 은사, 스님들에게 3배 △출가 다짐 △삭발 △은사 스님 염송 △출가자 발원 △입도증서 및 발우 수여 △인사말 및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증명법사는 충담문도 문장 지성 스님, 태고종 호법원장 지현 스님, 호법위원 옥산 스님이 맡았으며 체도사는 무종 스님이 담당했다.



지성 스님은 "출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삭발하고 출가하는 출가자에게 부처님 가피가 두루 하길 바란다. 또한 한국불교의 정통종단에서 수계를 하고 큰스님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은사인 보현사 묵원 스님은 "삭발 의식은 출가자가 승가의 일원이 되는 뜻깊은 의식"이라며 "삭발의 진정한 의미는 세속의 찌든 욕심과 거짓으로 쌓인 머릿속 잡념을 없애버리란 의미이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눈에 보이지 않는 불사 文化"

영축문화연구원 개원한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통도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문화연구원 설립 취지를 설명하는 현문 스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이끌어가고 인류를 지배하는 힘이 바로 문화입니다. 인간 삶의 형태를 구성하는 힘은 정신, 즉 마음에서 나옵니다. 문화 대통령이라 불리는 방장 성파 스님은 통도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문화이며 통도사뿐 아니라 불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그 결과물이자 시작점이 바로 영축문화연구원입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지난 8월 17일 새롭게 문을 연 영축문화연구원이 불교문화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모범이 될 곳이라고 설명했다. 발굴하지 않은 불교 정신문화를 숨겨진 보물처럼 여기고 오지를 향해 탐험하는 배가 새롭게 출항한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불교문화 연구에 부족했던 현실을 지적하는 따가운 충고이기도 하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나랏말싸미에 등장한 신미대사를 역사왜곡이라 합니다. 역사왜곡이 아니라 반박하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연구와 대중화 노력이 부족한 탓에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방장스님은 신미 대사에 관심이 일찍부터 있었고 자료도 가지고 계십니다. 일찍이 중요성을 아시고 앞서 자료화하고 연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선구자로 평생 연구한 문화콘텐츠 결과를 새롭게 문을 연 영축문화연구원에서 펼치실 겁니다. 통도사 내 역대 선사뿐 아니라 역사 속에 활동한 영웅과 같은 분들을 발굴해 제대로 조명하고 불교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함께 조력할 것입니다."

영축문화연구원은 〈통도사지〉 발간을 필두로 역대 선사와 시대 영웅을 소개하고 대중의 눈높이 맞는 결과물로 편하게 다가간다는 전략이다. 어렵지 않게 대중에게 결과물을 보여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접근한다. 우선 통도사 창건부터 근현대 역사까지 담은 〈통도사지〉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풀어 설명할 계획이다.

대중화 부족한 불교문화 중심
자세한 연구로 접근성 높인다
읽기 쉬운 〈통도사지〉 발간 등
문화 · 예술 아우르는 거점 역할

"중요 사찰에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딱딱해 스님들도 읽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리려면 대중에게 맞는 눈높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정보와 역사 문헌을 담는 자료 책과 함께 대중을 위한 쉬운 책으로도 발간해 모두가 함께 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문 스님은 특히 영축문화연구원은 불자뿐 아니라 문화 예술인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 종합 문화콘텐츠 구심점이란 부분도 강조했다.

안으로는 〈통도사지〉 발간 및 연구에 앞장서고 무형문화재 발굴 및 문화재 등록 사업에도 주력한다. 밖으로는 문화예술인이 함께 설 수 있는 중심지로 통도사와 불교를 아름다운 예술에 담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에 통도사와 불교를 담아 대중화한다는 설명이다. 영축문화연구원 개원 전 통도사 서운암은 문학인을 격려하기 위해 영축문학원을 운영해왔다. 그뿐 아니라 염색, 전통 사찰 음식, 차문화 등 불교 전통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주며 예술인들을 위한 든든한 기둥으로 활동했다. 이 모든 문화콘텐츠가 영축문화연구원과 함께한다.

아울러 주지 현문 스님은 통도사와 방대한 불교문화를 책과 다양한 문화로 풀어 낼 연구위원들을 새롭게 구성했다.

연구위원은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인해 스님과 영축불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을 활동한 광우 스님, 통도사 성보박물관 관장 송천 스님이 연구위원을 담당했다. 재가 연구위원은 윤영해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와 초서 전문가인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이 동참한다.

"통도사에는 교학과 불교예술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영축문화연구원은 사명대사, 이동인 스님, 환성지안 스님 등 역사상 뛰어난 업적에도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발굴해 조명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이분들을 조명하는 것은 건물 불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연구위원들을 비롯해 통도사 인재들의 역량은 정말 뛰어납니다. 통도사의 저력은 인재입니다. 통도사의 모든 인재들이 함께 꾸려갈 보이지 않는 불교문화 물결은 큰 힘이 되어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표충서원서 儒佛 함께 즐긴다"

표충사 '표충서원, 문을 열다'
매주日, 문화재활용사업 운영

전통사찰 공간에서 불교 전통문화와 함께 유교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이 열려 호평을 받고 있다. 가족 단위로 찾아 경험할 뿐 아니라 한국정신 문화를 체험할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에게도 꾸준한 인기다.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주지 법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표충서원, 문을 열다' 체험 프로그램을 표충사 경내와 표충서원에서 진행 중이다.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표충서원, 문을 열다' 체험 프로그램은 문화재청에서 후원하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중 하나로 전반기에 이어 오는 11월까지 이어진다.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 '표충서원, 문을 열다' 프로그램서 단주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참가자들.

'표충서원, 문을 열다' 프로그램은 등불교실과 고사리교실로 나눠 진행된다. 등불교실은 표충사 방문객 및 어르신이 대상이며 프로그램은 한글교실(사경), 서예교실, 교복 복식체험, 졸업장 수여, 졸업사진 촬영 등이다. 고사리 교실 대상은 지역 초등학교 및 템플스테이 참가자(미취학, 초등생)이며 교육프로그램은 일곱빛깔 우리문화 단청 아트 페인팅, 108 염주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우리지역 문화유산(보유문화재) · 위인(사명대사) 주제 스토리텔링 교실 운영, 전통예절 · 불교예절 교실 등이다. 그 외 표충서원 나무공예 만들기 및 유교식 제례복 착복 체험도 운영하고 있다. 참가비는 모두 무료다.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은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山寺)의 우수한 문화재를 활용해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고품격 체험 관광 상품이다. 불교 영역인 사찰 공간에 유교식 제향 · 교육기관인 '서원' 이 자리한 표충사의 특색을 활용해 〈표충서원, 문을 열다〉라는 타이틀로 색다른 문화를 선사하고 있다.

표충사는 "산하기관인 표충사호국박물관에서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역사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055)352-115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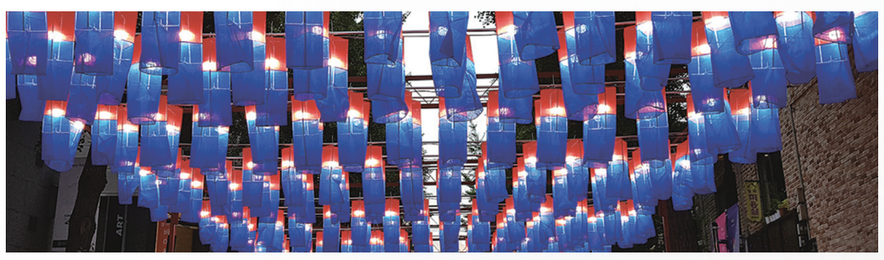


보련기획

장엄등을
대여해드립니다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 시공
행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출
보관 · 사후관리 불필요











불사용 장엄등 시공 · 임대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